

<규탄결의문>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매국정치를 강력 규탄하며 친일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경질하라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광복을 기쁨을 나눠야 할 경축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담한 친일매국정치로 대한민국 광복절의 숭고한 정신까지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부정, 백선엽에 대한 친일 행위 문구 삭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사도광산 유네스크 등재를 찬성하는 대일 굴욕외교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왔습니다.

여기에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국가교육위원장, 진실화해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이어 독립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 친일세력에 넘겨주는 친일 역사 쿠데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신민이었다”고 말하는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을 맞아 취임 첫 행보로 친일파 명예회복에 팔걷고 나서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정신을 모욕하는 자를 다른 자리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인 친일매국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일본 총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

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자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능멸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충절의 고장 충청도민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역사능멸 친일굴종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역사와 민족 앞에 죄인이 되려고 한다면, 불의한 권력으로는 막지 못할 대한국민의 거센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있는 친일 뉴라이트 학자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서 즉각 경질하고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하나! 건국절 논란을 부추겨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만행을 당장 멈추고 헌법에 명시된 이 사실을 국민들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하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 등 취임 이후부터 계속된 친일매국 정치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고 국가와 민족의 편에 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2024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도당